

## 부산 일부 지역의 영구불임 피술자들에 대한 사회의학적 조사

대한가족계획협회 부산지부 부속의원

송 일 용

(지도: 김 돈 균 교수)

### Abstract—

#### Sociomedical Study on the Person Recieved Permanent Sterilization Method in Busan Area

Ill Yong Song, M.D.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of Korea, Busan Clinic*

(Directed by Prof. Don Kyoum Kim, \* M.D.)

This study was carried out for the evaluation on the sociomedical characteristics of 1,580 cases who had recieved vasectomy and laparoscopic sterilization at the Busan Family Planning Clinic from January 1978 to December 1978.

The results obtained were as follows :

1. In age distribution, the most predominant age group consisted of 30.34 years as 44.7%. In regional distribution, the most predominant region was Youngdo Ku in the vasectomy group and Dong Ku in the laparoscopic sterilization group.
2. The educational level showed that the high school graduates(49.2%) in the vasectomy group and the primary school graduates(47.0%) in the laparoscopic sterilization group were the highest each other.
3. The most predominant experienced contraceptive method before accepted permanent sterilization operation was oral pills and non-experienced contraceptive method group was 54.1% of the total.
4. By the span of marital life before accepted permanent sterilization operation, the 5-9 years group was the highest.
5. The average number of living children per family was 2.54 in the vasectomy group and 3.0 in the laparoscopic sterilization group.
6. The average frequency of pregnancy per case was 2 in the vasectomy group and 3 in the laparoscopic sterilization group and the most predominant frequency of induced abortion was 1 per case.
7. The most predominant motive of accepting the sterilization operation were family planning education at the reserve forces training in the vasectomy group and at the mother's club in the laparoscopic sterilization group.
8. By the residing status of the cases, rented room was the highest as 69.4%.

\*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College of Medicine,  
Busan National University.

## I. 서 론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발전 및 소득향상에 제약요인이 되고있는 인구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 인구증가율은 年 1.6% 미만으로 유지하고 1991년의 총인구는 4,500만대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와같이 인구증가 속도의 둔화를 위한 정책방향은 현행 가족계획사업의 개선, 출산력 조절을 위한 사회적·제도적 접근, 여성 역할의 변화 등에 있다고 한다<sup>1)</sup>.

우리나라 가족계획사업의 연도별 실적, 피임방법별 변화 추이를 보면, 1962년 부터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보급해온 루우프 시술 실적은 1976년까지 연도별 전체실적의 40% 이상을 차지 하였으나 1977년부터 급격히 증가한 난관 수술로 인하여 그 수용율은 저하되어 1978년에는 33.8%를 보이고 있는데 반하여 난관수술의 구성비는 1976년 5.0%에서 1978년에는 27.1%로 증가하고 있다<sup>2)</sup>.

정부지원에 의한 난관시술 보급이 착수된 1972년의 피임방법별 실적을 기준하여 연도별 증감현상을 보면 난관수술 및 정관수술을 제외한 모든 피임방법의 실적이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정관수술은 1972년에 비하여 약 2.2배로 증가되었고 난관수술은 무려 59.7배가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볼 때 불임수술 수용자의 급격한 증가는 타피임방법의 수용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피임실천 부인의 91.9%가 단산을 목적으로 피임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불임수술의 수용율은 더욱 증대할 것으로 예측된다<sup>2)</sup>.

따라서 현행 가족계획 사업에 있어서 불임수술 보급은 당연히 대상자의 피임방법에 대한 기호에 따라서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인구조절을 위한 가족계획사업의 개선에 있어서는 피임방법중 여성들의 난관절제에 의한 불임술과 남성불임수술인 정관수술과 같은 영구피임술이 중요시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이를 실시하기 위한 많은 기초조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오늘날까지 가족계획사업을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영구피임술을 받은자들에 대한 사회·의학적인 조사연구는 희소하므로 본조사는 영구피임을 위한 난관수술과 정관수술을 받은 여성과 남성들에 대한 사회·의학적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결과는 향후 영구피임수술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 II. 조사대상 및 방법

본조사 대상은 1978년 1월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대한가족계획협회 부산지부 부속의원에서 영구피임수술을 받은 부인 600명, 남자 980명 총 1,580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난관이나 정관수술을 실시하기 전에 미리 마련된 설문지를 갖고 저자가 직접 면접하여 문진을 통하여 기록하였으며 이 기록된 설문지를 종합분석하였다.

## III. 조사 성적

### 1. 연령별 분포

조사 대상자들의 연령별 분포는 30-34세 군이 44.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35-39세군 40.4% 25-29세군 9.7%의 순위였으며 이들을 정관수술수용자와 난관수술수용자 별로 보면 정관수술군이나 난관절제술군에서 다같이 가장 많이 불임수술을 받은 연령군은 30-34세군(47.3%, 40.4%)이고 다음이 35-39세군(46.1%, 31%)이었으며 결국 30-39세 군에서 정관수술군은 전체의 93.4%, 난관절제술군도 전체의 78.3%가 불임술을 받고 있는 것이다. 난관절제술군에 있어서는 젊은 연령층인 20-24세군(4%)에서 벌써 피임술을 받고 있으나 남성들의 경우에는 이와같이 젊은 연령층에서는 전혀 없는 반면 45세 이후에서 0.5%나 불임술을 받고 있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표1 참조).

### 2. 지역별 분포

불임수술수용자들의 지역별 분포는 영도구가 31.4%로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동구(22.8%),진구(19.6%)의 순위였으며 이들을 정관수술군과 난관절제술군별로 보면 정관수술군은 영도구가 48.3%로 가장 많은 지역이었고 다음이 부산진구(14.8%), 동구(13.5%)의 순위였고 난관절제술군의 경우는 동구가 38%로 가장 많은 지역이었고 다음이 부산진구(27.5%), 남구(13.2%)의 순위였다.(표2참조)

**Table 1. Age Distribution**

Age (year)	Sterilization		Total
	Vasectomy	Laparascopy	
20 ~ 24	0 (0)	4 (1.0)	4 (0.3)
25 ~ 29	29 (3.0)	125 (21.0)	154 (9.7)
30 ~ 34	464 (47.3)	242 (40.0)	706 (44.7)
35 ~ 39	452 (46.0)	187 (31.0)	639 (40.4)
40 ~ 44	30 (3.1)	42 (7.0)	72 (4.6)
45 and over	5 (0.5)	0 (0)	5 (0.3)
<b>Total</b>	<b>980</b> (100.0)	<b>600</b> (100.0)	<b>1,580</b> (100.0)

**3. 교육정도별 분포**

피임수술수용자들의 교육정도별 분포는 표 3에서와 같이 중학교 졸업군이 35.4%로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관수술수용자들에서는 고등학교 졸업군이 41.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이 중학교졸업군(36.9%), 대학교 졸업군(11.9%)의 순위이고 난관수술수용자들에서는 국민학교 졸업군이 47.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이 중학교 졸업군(33.2%), 대학교 졸업군(14.8%)의 순위였다.

**Table 2. Regional Distribution**

Sterilization	Region									Total
	Jung Gu	Seo Gu	Dong Gu	Yeongdo Gu	Busanjin Gu	Dong-rae Gu	Nam Gu	Buk Gu	Others	
Vasectomy	18 (1.8)	53 (5.4)	132 (13.5)	473 (48.2)	145 (14.8)	55 (5.6)	43 (4.4)	56 (5.7)	5 (0.5)	980 (100.0)
Laparascopy	5 (0.8)	24 (4.0)	228 (38.0)	23 (3.8)	165 (27.5)	28 (4.7)	79 (13.2)	41 (6.8)	7 (1.2)	600 (100.0)
<b>Total</b>	<b>23</b> (1.5)	<b>77</b> (4.9)	<b>360</b> (22.8)	<b>496</b> (31.4)	<b>310</b> (19.6)	<b>83</b> (5.3)	<b>122</b> (7.7)	<b>97</b> (6.1)	<b>12</b> (0.7)	<b>1,580</b> (100.0)

**4. 불임수술전에 이용한 피임방법별 분포**

불임수술 받기 전에 이용한 피임방법은 먹는 피임약을 이용한 것이 17.7%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이 루우프시술(16.3%) 콘돔(10.3%)의 순위이며 정관수술군에서는 부인들이 먹는 피임약 복용에 의한 것이 17.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하였으며 다음이 자궁내 장치(15.0%) 자기 자신의 피임법인 콘돔(14.0%) 사용의 순위였다.

난관수술군에서는 자궁내 장치와 경구피임약 사용이 각각 18.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남편들에 의한 콘돔(4.4%) 사용에 의한 것이었다(표4참조).

**Table 3. Educational Distribution**

Education	Sterilization		Total
	Vasectomy	Laparascopy	
Illiteracy	5 (0.5)	20 (3.3)	25 (1.6)
Primary school	89 (9.1)	282 (47.0)	371 (23.5)
Middle school	362 (36.9)	199 (33.2)	561 (35.5)
High school	407 (41.6)	89 (14.8)	496 (31.4)
College	117 (11.9)	10 (1.7)	127 (8.0)
<b>Total</b>	<b>980</b> (100.0)	<b>600</b> (100.0)	<b>1,580</b> (100.0)

**Table 4. Birth Control Methods Prior to Sterilization**

Sterilization Method	Sterilization Method (%)		
	Vasectomy	Laparascopy	Total
Not used	506 (51.6)	349 (58.2)	855 (54.1)
Loop	147 (15.0)	110 (18.5)	257 (16.3)
Oral pill	170 (17.4)	110 (18.5)	280 (17.7)
Condom	137 (14.0)	26 (4.4)	163 (10.3)
Others	20 (2.0)	5 (0.4)	25 (1.6)
<b>Total</b>	<b>980</b> (100.0)	<b>600</b> (100.0)	<b>1,580</b> (100.0)

**5. 결혼기간별 분포**

불임수술을 받을때까지의 결혼생활기간을 보면 표 5에서와 같이 5~9년군이 51.7%로서 가장 많으며 이들 중 정관수술수용자는 5~9년군이 56.5%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1~4년군(31.3%), 10~14년군(11.6%)의 순위이며 난관수술수용자들은

역시 5~9년군이 4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10~14년군(29.7%), 1~4년군(18.2%)의 순위였다.

**6. 현존자녀수별 분포**

조사 대상자들의 현존자녀수별 분포를 보면 정관수술수용자들은 2명의 자녀가 50.4%로 가장 많

**Table 5. Duration of Marital Life at the Sterilization**

Years	Sterilization (%)		
	Vasectomy	Laparascopy	Total
1 ~ 4	307 (31.3)	109 (18.2)	416 (26.3)
5 ~ 9	554 (56.5)	263 (43.8)	817 (51.7)
10 ~ 14	114 (11.6)	178 (29.7)	292 (18.5)
15 ~ 19	5 (0.5)	44 (7.3)	49 (3.1)
20 ~		6 (1.0)	6 (0.4)
<b>Total</b>	<b>980</b> (100)	<b>600</b> (100)	<b>1,580</b> (100)

**Table 6. Number of Off-Springs at Time of Sterilization**

Sex	No. of child off springs	No. of child off springs (%)						Total	
		0	1	2	3	4	5		
Total	Total		34 (3.5)	494 (50.4)	351 (35.8)	92 (9.4)	9 (0.9)	980 (100.0)	
	Vasectomy	Boys	83 (8.5)	488 (49.8)	388 (34.5)	63 (6.4)	8 (0.8)	0 (0)	980 (100.0)
		Girls	213 (21.7)	436 (44.5)	282 (28.2)	42 (4.3)	6 (0.6)	1 (0.1)	980 (100.0)
Laparascopy	Total		9 (1.5)	242 (40.3)	171 (28.5)	151 (25.2)	27 (4.5)	600 (100.0)	
	Boys	Boys	9 (1.5)	229 (38.2)	290 (48.3)	66 (11.0)	5 (0.8)	1 (0.2)	600 (100.0)
		Girls	133 (22.2)	272 (45.3)	138 (23.0)	40 (6.7)	17 (2.8)	0 (0)	600 (100.0)

있고 세자녀가 35.8%, 비자녀가 7.4%의 순위였으며 이들중 아들이 전혀 없었던 군은 83명(8.5%), 딸이 한명도 없었던 군은 213명(2.7%)이었다.

이들의 평균 자녀수는 2.54명이며 아들 1.4명, 딸 1.2명이었다.

한편 난관절제술도 2명의 자녀가 40.3%로 가장 많았고 세자녀가 28.5%, 비자녀가 25.2%의 순위였으며 이들중 아들이 전혀 없었던 군은 9명(1.5%)이었고 딸이 한명도 없었던 군은 133명(22.2%)이나 있었다. 평균 자녀수는 3.0명, 아들은 1.72명, 딸은 1.2명이었다(표6참조).

### 7. 임신회수별 분포

조사 대상자들의 임신회수별 분포를 보면 임신회수가 2회인 군이 2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3회로 25.8%, 4회 16.0%의 순위이며 정관수술수용자들의 부인들의 임신회수는 2회가 37.0%, 3회가 30.1%, 4회가 14.5%의 순위이고 난관수술군의 임신회수는 3회가 18.8%로 가장 많고 다음이 4회(18.7%), 5회(17.7%) 순위로서 정관수술군 보다는 난관수술군의 임신회수가 많았다(표 7 참조).

### 8. 인공유산별 분포

조사 대상자들의 인공유산별 분포는 1회도 경험하지 않은 군이 전체의 38.8%나 있었고 단 1회만을 경험한 군이 23.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2회(17.3%), 3회(11.5%)의 순위였으며 정관수술군의 부인들의 인공유산회수는 1회가 22.6%로 가장 많고 다음이 2회(17.0%), 3회(8.7%)의 순위이며 1회도 경험하지 않은 부인들은 48.1%나 되었다.

난관수술군의 인공유산회수는 1회가 24.8%로 가장 많았고 2회가 17%, 3회(16.2%)의 순위였으며 1회도 인공유산 경험이 없었던 부인은 23.7%로 정관수술군의 부인들에 비하여 인공유산회수가 많은 경향이었다(표 8 참조).

### 9. 피임술을 받게 된 동기별 분포

피임수술을 받게 된 동기별 분포를 보면 표 9에서와 같이 예비군 훈련시 받은 가족계획교육 때문이었다는 것이 43.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가족계획협회 부속진료소(29.4%), 어머니회(17.9%)의 순위였으며 정관수술군 전체의 70.4%가 예비

Table 7. Frequency of Pregnancy

(%)

No. Kind	1	2	3	4	5	6	7	8	9	10	
Total	20 (1.3)	426 (27.0)	408 (25.8)	254 (16.0)	205 (13.0)	120 (7.6)	63 (4.0)	35 (2.2)	29 (1.8)	20 (1.3)	1,580 (100.0)
Vasectomy	15 (1.5)	362 (37.0)	295 (30.1)	142 (14.5)	99 (10.1)	41 (4.2)	16 (1.6)	6 (0.6)	2 (0.2)	2 (0.2)	980 (100.0)
Laparascopy	5 (0.8)	64 (10.7)	113 (18.8)	112 (18.7)	106 (17.7)	79 (13.2)	47 (7.8)	29 (4.8)	27 (4.5)	18 (3.0)	600 (100.0)

Table 8. Incidence of Induced Abortion

(%)

Incidence Sterilization	0	1	2	3	4	5	6	7	Total
Total	613 (38.8)	370 (23.5)	272 (17.3)	182 (11.5)	54 (3.4)	51 (3.2)	24 (1.5)	14 (0.9)	1,580 (100.0)
Vasectomy	471 (48.1)	221 (22.6)	170 (17.3)	85 (8.7)	15 (1.5)	10 (1.0)	4 (0.4)	4 (0.4)	980 (100.0)
Laparascopy	142 (23.7)	149 (24.8)	102 (17)	97 (16.2)	39 (6.5)	41 (6.8)	20 (3.3)	10 (1.7)	600 (100.0)

Table 9. Route of Recognition about Sterilization

(%)

Route Sex	Clinic	Health center	Reserve forces	Mother's club	Neighborhood meetings	Total
Total	465 (29.4)	71 (4.5)	690 (43.7)	283 (17.9)	71 (4.5)	1,580 (100.0)
Vasectomy	207 (21.1)	36 (3.7)	690 (70.4)	5 (0.5)	42 (4.3)	980 (100.0)
Laparascopy	258 (43.0)	35 (5.8)	0 0	278 (46.4)	29 (4.8)	600 (100.0)

군 훈련시 가족계획교육에 의한 것이었고 다음이 부속진료소 (21.0%), 반상회 (4.3%)의 순위였고 난관수술군은 어머니회에 의한 것이 46.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부속진료소 (43.0%), 보건소 (5.8%)의 순위로서 남자는 예비군훈련, 여자는 어머니회의 영향을 각각 가장 많이 받고 있었다.

10. 가옥소유 상태별 분포

조사 대상자들의 가옥소유별 분포상태를 보면 표 10에서와 같이 월세방이 69.1%로 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자기집을 갖고있는 군은 38.9%에 불과하였다. 이들을 피임수술별로 보면 정관수술군은 71%가 월세방이고 29%만이 자기집을 갖고 있었으며, 난관수술군은 월세방이 68%, 자기집 소유자가 32%로 정관수술군에 비하여 자기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향이 약간 많은편이었다.

IV. 고 안

일정한 수의 자녀를 확보한 뒤의 피임은 간편성으로 보나 경제성으로 보나 안전성으로 보나 특히 그 확실성으로 보아 정관이나 난관의 불임술을 거론하게 되며, 정관불임술은 1962년부터, 난관불임술은 1972년 이후부터 각 가족계획협회 지정의료기관에서 활발히 시술하고 있다. 소위 단종술이라 하여 종래에는 기피하여 왔을 여성피임 수술이 최근에 복강경불임수술, minilaparatomy 등 비교적 새롭고 간편한 수술식이 고안되어 영구피임을 원하는 부인들에게 환영을 받고있어 1972년에 비하여 여성피임수술자가 무려 59.7배나 증가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정관절제술을 받은자도 1978년 현재로 1972년에 비하여 2.2배로 증가하고 있으며<sup>2)</sup>정관

Table 10. Housing Status

(%)

Housing status Sterili- zation	Own house	Monthly lent	Total
Vasectomy	287 (29.0)	693 (71.0)	980 (100.0)
Laparascopy	194 (32.0)	406 (68.0)	600 (100.0)
Total	481 (38.9)	1,099 (69.1)	1,580 (100.0)

수술수용자들을 그 나라 인구비례로 보면 인도,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그 수가 세번째로 많다고 한다<sup>3)</sup>. 정관수술수용자들의 연령별 분포는 30-34세군이 47.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조<sup>2)</sup>의 정관수술을 받은 전국 평균 30-34세군과 일치하고 있다. 난관수술의 수용자들에 있어서도 30-34세군이 40.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김<sup>4)</sup>의 43.2%, 원<sup>5)</sup>의 38.5%, 조<sup>2)</sup>의 전국 평균의 37.9%<sup>6)</sup>의 41.5%, 김<sup>7)</sup>의 43.2%와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하겠다.

조<sup>2)</sup>에 의하면 난관수술수용자들의 연령은 1972년에는 전국 평균 35-39세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1978년에는, 그 비중이 30-35세로 이동하고 있어 난관수술수용자들의 연령이 매년 젊어져가고 있다고 한다.

조<sup>2)</sup>는 난관수용자의 피임수용기가 정관에 비하여 늦다고 하였으나 저자의 성적은 이와 반대로 난관수술수용자들이 29세 이하가 22.0%, 정관이 3.0%로 오히려 난관수술수용자들이 정관에 비하

여 빠른 것은 조<sup>2)</sup>는 전국 평균이고 저자의 성적은 부산의 일부지역이란 조사 대상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진료소에서 진찰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여 어떤 조사를 실시할 때는 그 진료소의 위치가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다른 여건들도 가미하게 된다.

난관수술수용자들의 지역별 분포로는 동구지역이 38.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본 진료소가 동구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는 조건이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정관수술수용군에서 영도구가 48.3%로서 가장 많은 것은 영도구의 예비군 훈련시 본 협회 전임강사가 직접 투입되어 가족계획에 대한 교육과 권장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인간의 행동은 그 교육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모든 사항의 결정에 있어서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단종수술인 영구피임을 수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도 교육정도가 크게 좌우할 것이다.

본 조사에서 정관수술수용자들중 고등학교 졸업군이 49.2%로서 가장 많았던 것은 조<sup>2)</sup>의 전국 평균 34.0%로서 가장 많았던 성적과는 같은 경향이 라 볼 수 있겠으나 이<sup>3)</sup>가 국민학교 졸업군에서 가장 많았다는 성적과는 차이가 있으며 이것은 조사연대차이에 있다고 생각된다.

난관수술수용자들은 국민학교 졸업군이 47.0%로 가장 많은 것은 김<sup>4)</sup>의 37%, 하<sup>8)</sup>의 33%, 조<sup>2)</sup>의 54.5%로 모두 국민학교 졸업군에서 많았었다는 것과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정관수술수용자에 비하여 학력수준이 낮은 것은 우리나라 남자들의 전통적인 가치관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강하게 작용하여 남성이 수술을 받는 것 보다는 여성에게 불임수술을 받게 하는데서 연유된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 가족계획사업중 피임방법의 역사를 보면 1962년에 콘돔과 정관수술의 두가지 방법으로 피임사업을 시작하였던 것이 1963년에는 자궁내장치, 1968년에는 먹는 피임약, 1970년부터는 난관수술, 1974년에는 월경조절술등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방법과 종류가 많아지고 있지만 난관수술과 정관수술과 같은 영구피임술이 대중을 이루게 되었다.

1978년도 가족계획사업의 실적을 보면 루우프시술이 33.8%로 아직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으며 다음이 난관수술(27.1%), 먹는 피임약(18.3%)의 순위지만 본조사 대상자들의 불임수술 이전에 이용하였던 피임방법으로는 정관수술이나 난관수술수용자들이 모두 먹는 피임약을 제일 많이 사용한 것은 간편하고 어기지 않고 복용만 하면 그 효과가 거의 100%에 가까운 때문일 것이다.

영구불임수술의 결정은 적당한 자녀수가 적당한 터울로 확보되었을 때 이루어질 것이다. 결혼하여 적당한 자녀수를 갖는 기간이란 모두 일정하지 않겠지만 본조사에서 51.7%가 결혼후 5~9년에서 불임수술을 받았으며 정관수술수용자는 5~9년에서 56.5%가 불임수술을 받은 것은 8년전에 조사한 이<sup>3)</sup>의 결혼후 20~24년군에 가장 많았다는 것과 커다란 차이가 있으나 단산의 경향이 현재 빨라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난관수술수용자들은 결혼후 5~9년군에서 43.8%가 불임수술을 받아 정관수술수용자들에 비하여 저율인 것은 남, 녀 결혼연령차이에서 오는 결과인 것이다.

우리나라 가족계획사업의 2대 저해요인은 남아 선호사상과 자녀의 수에 있다고 한다. 정관수술수용자들의 전국 연도별 평균 자녀수를 보면 1970년도 4명, 1972년~1974년도 3명, 1975년부터는 2명의 자녀를 갖은 뒤에 정관수술을 받는 비중이 가장 높아졌다고 하고 1978년에 와서는 2명의 자녀를 둔 사람이 정관수술자들의 44.7%나 차지하는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고 하였다.

저자의 성적도 2명 자녀를 갖은 후에 정관수술을 받은 자가 전체의 50.4%에 달하고 이들의 평균 자녀수는 2.54명으로 조<sup>2)</sup>의 전국평균 2.7명과는 일치하고 있으나 이<sup>3)</sup>의 4.7명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으며 이는 조사연대가 8년 이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며 현재로서는 2~3명의 자녀를 갖은 후에 단산을 하고 있다고들 한다.

난관수술수용자들의 현존 자녀수는 2명이 40.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어 정관수술수용자보다 약간 적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겠으나 김<sup>1)</sup>, Clifford<sup>9)</sup>는 3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서울과 미국이라는 지역적인 또는 조사대상의 차이에 의한 것도 있겠으나 연대적인 차이, 즉 근년에 올수록 자녀수가 적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난관수술수용자들의 평균 자녀수는 3명으로 조<sup>2)</sup>의 전국평균 3.3명 보다는 약간 적은 편이나

곽<sup>6)</sup>, 장<sup>10)</sup>, 박<sup>11)</sup>, 하<sup>8)</sup>의 성적과는 일치되는 경향이 있었다.

정관수술수용자들의 부인들의 임신회수는 2회(37.0%)가, 난관수술수용자들의 임신회수는 3회(18.8%)가 각각 가장 많은 임신회수로서 난관수술수용자들의 임신회수가 많은 편이다. 이 난관수술수용자들의 임신회수는 김<sup>4)</sup>의 5회(18.4%)이<sup>12)</sup> 5회, 조<sup>15)</sup> 3.6회, 이<sup>13)</sup>의 4.3회, Prystowsky<sup>14)</sup> 6.7회에 비하면 낮은 편이지만 이<sup>16)</sup>의 성적과는 일치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시간이 거듭할수록 피임수술수용자들의 임신회수는 적어지고 있기 때문이며 정부에서 계획 실시하고 있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표어와 일치하여져 가고 있다고 하겠다.

피임수술수용자들의 인공유산별 분포를 보면 정관수술수용자들의 부인과 난관수술수용자들은 인공유산회수를 1회만 경험한율이 각각 22.6%와 2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김<sup>4)</sup>, 정<sup>17)</sup>의 성적과 일치하고 있으나 인공유산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군은 정관수술수용자들의 부인과 난관수술수용자에서 각각 48.1%와 23.7%로서 김<sup>4)</sup> 정<sup>17)</sup>, 원<sup>5)</sup>, 장<sup>10)</sup>, 박<sup>18)</sup>의 성적보다 높은 것은 접차로 임신을 적절히 하고 인공유산의 회수를 줄이고 필요한 때 난관불임술을 택하려는 태도가 부인들 사이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불임술이란 곧 단종을 뜻하기 때문에 불임수술을 받기로 결정하기 까지엔 많은 주저와 마음의 동요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수술 받길 결정하는 때는 뚜렷한 동기 또는 적절한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정관수술수용자들은 예비군 훈련시 가족계획요원에 의하여 교육받은 것이 정관수술 받는 동기가 되었다는 것이 43.7%, 난관수술수용군은 어머니회에 의한 것이 46.4%로 각각 반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sup>3)</sup>, 민<sup>19)</sup>의 동기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동기에 의한 것이므로 앞으로 불임수술을 위한 홍보사업의 접근방법은 경우에 따라 달리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하겠다.

경제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많은 자녀를 갖기를 원하고 터울조절에 유의하지 않는 것이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경향으로 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불임수술수용자들의 69.1%가 월세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와같은 경향이 불식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 있다고 하겠다. 물론 불임수술수용자들의 연령분포가 30~39세군이 85.1%

로 아직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연령층이 대부분이었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가족계획협회 부속의원에서 무료수술을 하고 있었다는데도 이유가 있는 탓으로 본다.

## V. 요약

1978년 1월부터 동년 12월까지 대한가족계획협회 부산 진료소에서 영구피임을 목적으로 정관수술과 난관수술을 받은 1,580명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학적인 특성을 조사한 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영구피임수술수용자들의 연령은 30~34세군이 44.7%로 가장 많았으며 정관수술수용자들은 영도구(48.3%)에서, 난관수술수용자는 동구(38.0%)에서 각각 제일 많았다.
2. 교육정도는 정관수술수용자들은 고등학교 졸업군(49.2%)에서, 난관수술수용자들은 국민학교 졸업군(47.0%)에서 각각 가장 많았다.
3. 영구피임을 받기 전에 사용한 피임방법으로는 경구피임약 사용이 제일 많았으며 피임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군은 54.1%였다.
4. 영구피임수술을 받기 전까지의 결혼생활기간은 5~9년군이 가장 많았다.
5. 정관수술수용자들의 현존 자녀수는 2.54명이고 난관수술수용자는 3명이었다.
6. 평균임신회수는 정관수술수용자들은 2회, 난관수술수용자들은 3회였으며 인공유산회수는 1회가 가장 많았다.
7. 피임수술을 권고 받게 된 동기별로는 정관수술수용자들은 예비군훈련시 가족계획교육이, 난관수술수용자들에게는 어머니회에 의하여 되었다는 것이 가장 많았다.
8. 대상자들의 주거상태는 셋방이 69.4%로서 가장 많았다.

## REFERENCES

1. 김만제 : 교육과 인력개발, 장기경제사회발전, 한국개발연구원, 서울, 1977.
2. 조남훈 외 : 1979년도 가족계획 사업평가, 가족계획연구원, 서울, 1979.
3. 이희영 : 정관절제술, 대한의학협회지, 제20권 제3호, 1977.
4. 김지화 : 불임피술자의 가정적 배경에 관한 연구, 대



- 한불임학회지, 제 4권 제 2호, 1977.
5. 원병태 외 : 복강경에 의한 영구 피임술, 대한 산부인과학회지
  6. 박현모 외 : A Comparison of Laparoscopic Tubal Occulsion by Falope Ring and Electrocoutery, Korean Journal of Obst. and Gyne., 19, 23, 1976.
  7. 김 외 : 산후 난관 결찰술이 심신에 미치는 영향, 경희의대 논문집 1, 163, 1976.
  8. 하정환 외 : Yoon's Falope Ring에 의한 난관 불임술시 Lidocaine Jelly의 효과, 대한산부인과학회지, 119, 671-7, 1976.
  9. Clifford Wheelless : Am. Journal of Obst. and Gyne., 6: 38, 1971.
  10. 장윤석 : 전기소자법에 의한 복강경 불임술의 임상적 연구, 대한산부인과학회지, 20, 29, 1977.
  11. 박형종 외 : 한국 농촌 남편들의 가족계획행위에 관한 연구, 가족계획 논문집, 가족계획연구원, 제 3호, 1976.
  12. 이 국 외 : 난관불임수술에 관한 임상학적 연구, 대한산부인과학회지 16, 185, 1974.
  13. 이성관 외 : 농촌에 있어서의 모자보건 실태현황, 경북의대잡지 제 13권, 제 2호, 1972.
  14. Prystowsky and Eastman : Puerperal Sterilization, Am. Journal of Obst. and Gyne., 15, 8, 463, 1955.
  15. 조원제 : 임신과 출생간격에 관한 조사 연구, 부산의대잡지, 제 14권, 제 1호, 1974.
  16. 이향련 : 임신 및 출생간격에 관련된 원인 분석, 공중보건학잡지 제 9권, 제 3호, 1972.
  17. 정 외 : 난관불임술에 관한 임상적 관찰, 대한산부인과학회지, 19, 671-7, 1976.
  18. 박인서 외 : 복강경 불임술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산부인과학회지, 18, 173, 1975.
  19. 민성길 외 : 복강경 불임술에 대한 정신의학적 연구, 대한산부인과학회지, 제 22권, 제 2호, 1979.